

◆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

- 위험 요인 분석

① 전환위험

: 탄소중립 정책 강화, 탄소세·배출권거래제 도입 등으로 인하여 화석연료 중심의 사업모델의 수익성 악화, 사업구조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 증대 → '30년 이후 탄소가격 급등으로 부가가치 급감, 물가상승으로 경영환경 악화

② 공급망 및 시장 리스크

: 글로벌 공급망 불안, 미중 무역갈등,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원자재 확보, 신재생에너지 PJT 추진 등 불확실성 증대

③ 물리적위험

: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, 자연재해 등은 생산기지, 물류, 인프라에 직접적인 피해 → 공급망 단절, 비용 증가

④ 규제 및 국제기준 강화

: 각국의 환경규제 강화(CBAM, CSRD, CSDDD 등)로 인해 수출입 및 글로벌 사업운영에 추가적인 비용과 규제 리스크 발생
→ 온실가스 감축 목표 미달성 시 법적·평판 리스크 직면

- 기회 포착

①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사업 확장

: 각국의 탄소중립 목표와 ESG규제 강화에 따라 태양광, 풍력,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트레이딩, 발전사업, 관련 공급망 구축에 적극 진출

②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및 경쟁력 강화

: 구축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2차전지 광물, 식량,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 사업기회 모색

- 중장기 전략 및 목표

바이오 에너지

PKS(Palm Kernel Shell:팜열매껍질) 및 WP(Wood Pallet:목재팔렛) 등 바이오매스를 고객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도모하고, 재생에너지 자원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또한 바이오디젤 원료인 RBD 팜유, UCO (Used Oil:폐식용유), POME(Palm Oil Mill Effluent:팜유공장폐수), 음폐유(음식물쓰레기 기름) 등의 공급 확대를 통하여 자원순환에 기반한 친환경 생태계 구축에 앞장서고자 합니다.

E Mobility

유해한 배출가스 및 온실가스 감축에 일조하고자 친환경 전기자동차(EV)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.

또한 전기버스 판매에 더하여 고객을 위한 EV Total Solution 제공 및 충전 인프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.

태양광 발전

태양광발전 설비를 위한 모듈/인버터/구조물 공급을 위하여 태양광기자재 제조사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고효율 제품을 통한 국내외 탄소중립 달성 및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또한 기자재 공급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시행자 역할도 검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

- 친환경사업(기후변화 및 탄소중립) 성과 및 중장기 계획

구분		단위	실적				계획	주요 중장기 전략
			'22년	'23년	'24년	'25년	~'28년	
E Mobility	전기버스 및 트럭	대수	92	936	776	1,106	500	① 전기버스 Line up 다양화(광역버스 등) *전기트럭 부문 '26년 BYD에 사업양도 ② 고품질 EV차량 개발로 경쟁력 확보
바이오 에너지	PKS 및 W/P	천톤	392	414	452	411	700	① 탄소저감 목적 연료전환 수요 대응 - 신규 수요가 캐칭 및 기존 수요가 장기계약 추진 ② 상품 다양화(우드칩 Line 확보) 및 일본시장 진출 모색 ③ 동남아 지역 우량 공급업체와 전략적 협업관계 구축
	바이오디젤 등	천톤	74	73	74	166	180	① 해외원료 수급을 통한 HVO / SAF 수요 대응 ② 대형 수거 정제업체와의 협력 관계 구축 ③ 자체 재고보관 시스템 구축 및 Bulk단위 고객 수요 대응
태양광 발전	모듈 및 인버터	MW	126	182	247	363	550	① 태양광 시장 확대 대응 위한 기자재 포트폴리오 확대 ② 사업시행자 역할 확대, 가용부지 활용 및 임대를 통한 발전사업 운영 추진